

정읍 귀농인에 농업창업·주거 지원

도시민 대상 안정 정착 독려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 자금 7500만원
저리 대출...28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귀농 도시민에게 농업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농기계 교육을 받고 있는 귀농인.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귀농 도시민에게 농업창업지원금과 주택구입비를 지원한다. 정읍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이달 28일까지 신청받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정부예산으로 이차보전하는 사업으로, 세대 당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원 한도다. 금리는 연 1.5%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 세대주면서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

다. 귀농 교육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농업인)은 거주기간과 교육 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읍시에서 정착할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라며 "많은 귀농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주택용 '한옥' 신축 최대 5천만원 지원

증·개·재축, 리모델링 3000만원
남원시가 단독주택용으로 한옥을 건축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남원시는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한옥을 신축하거나 등록된 한옥의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시 면적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전체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신축일 경우는 최대 5000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은 3000만원이다. 대상은 실생활 및 거주목적의 한옥 단독주택이

며 바닥 면적이 60㎡ 이상이어야 하고 한옥의 형태는 국토교통부 고시 한옥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 중 전북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재발사서류와 함께 시 건축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 해당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서 상담과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구름골 자연휴양림' 연말 착공

아산면 용계리 일원 2025년 완공
고창군이 지역 최초로 조성되는 초대형 자연휴양림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한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운곡습지 초입의 아산면 용계리 일원 54ha에 조성되는 고창군 최초의 자연휴양림이다. 숲속의집, 숲속야영장, 트리하우스, 숲속놀이터, 산책로와 탐방로를 설치해 급증하는 산림휴양 관광 수요를 목표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94억원

으로 2025년 말 완공 예정이며 현재 부지매입, 자연휴양림 지정승인(산림청)까지 마무리 됐다. 하반기 전라북도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올 연말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구름골 자연휴양림이 완성되면 운곡습지, 복분자유원지, 골프존카운티선운, 선운산도립공원, 고인돌유적지 등 다양한 문화·생태관광시설과 연계한 명품 관광코스가 만들어진다. 고창군 관계자는 "인근에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전북의 산림관광사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산업·농공단지 숨은 일자리 찾는다

129개 업체 구인·구직 전수조사
채용 계획·인원·시기 등 파악



정읍시 산업단지 전경.

정읍시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숨은 일자리 찾기에 나섰다. 정읍시는 지역 산업·농공단지 내 기업체 129개를 대상으로 '구인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내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정책팀장 등 조사반을 구성해 정읍시 소재 기업체의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조사 대상은 12개 산단 315개 기업체 중 종업원 수 10인 이상 기업인 129개소로, 구인여부(하반기 채용 계획, 채용인원, 채용시기 등)와 구인조건(채용 직종, 자격요건, 임금형태 등) 등을 파악한다. 지난 14일까지 전화를 통해 1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2인 이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17일부터 31일까지 직접 방문해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하반기 채용계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지역 내 구직자에게 일맞은 일자리를 추천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일 자리를 구하는 시민들이 알맞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지역 내 숨은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며 "일자리 구인·구직 해결로 지역 내 구직자와 기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증장년·청소년 대상 돌봄 서비스

돌봄·가사, 병원 동행 등...부담금 내면 누구든 이용

남원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일상돌봄 서비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증장년(만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다. 지원 내용은 돌봄과 가사 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서비스'(월 12시간·최대 72시간 이용)와 병원 동행,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 등 이용자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특

화 서비스'로 나눠 지원되며,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제한이 없어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만 내면 누구나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시는 총사업비 2억 3300만 원 중 1억 86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서비스를 수행하며, 이달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8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증장년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문화도시센터, 문화도시 시민활동가 발대

고창군이 최근 '2023 문화도시 시민활동가'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문화도시 시민활동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됐다. 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한 시민추진단·시민모니터단·시민심사단 등 총 87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민활동가들은 주민들과 함께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게 된다.

고창문화도시센터는 앞으로도 매년 문화도시 시민활동가 모집을 통해 누구나 '눈여보내도 문화인'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경험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 함께하는 문화적 경험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문화도시로 변화시켜 도시발전을 이루는 주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